

# 서구문학 속에 스며 있는 '선' 정신의 탐구

김현창 교수의 《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

김현창 교수의 《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서울대 출판부)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서구의 작가들이 동양사상을 깊이 연구해 자신들의 작품에 반영했지만, 오히려 동양사상에 무지한 우리들이 그들의 작품세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도(道)나 선(禪) 같은 말이 타오(Tao)나 젠(Zen)으로 표현돼야 피딱 뜻을 알아차릴 때가 올 지도 모른다는 것.

이 책은 《현대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신아사, 1984)의 개정증보판이다. 여기서 동양사상은 유·불·선 삼교와 힌두교를 일컫는다. '세계문학 속에 나타난 동양사상'이라는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몇가지 장치를 더해 새 모습으로 선을 보였다.

우선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개별 논문의 배열 순서를 조정하고, 두편의 글을 추가했다. 〈선과 현대문화〉 〈선과 현대 세계문학〉 〈문학에 나타난 선과 언어의 문제〉 같은 일반론을 앞쪽에 놓고, 옥타비오 파스·코르타사르·보르헤스·히메네스·로망 롤랑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동양사상의 자취를 분석한 글들은 뒤쪽에 놓았다.

### 도교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 전달

새로 들어간 논문인 〈구미에서의 도교연구〉는 초판에서 유교와 불교에 비해 소략하게 다뤄진 도교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구미 도교연구의 대표자로 조셉 니담과 프리츨프 카프라 같은 자연과학자를 거명한 것이 이채롭다. 또한 〈성 환 데 라



김현창 교수.

국내 스페인어문학 연구의 1세대에 속하는 김현창 교수(62,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에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스페인어 문학과 스페인어 관련서를 여러권 펴냈다. 스페인어 문학작품의 우리말 번역과 한국문학의 스페인어 번역작업도 활발하게 펼쳤다. 《스페인 문학사》 《중남미 문학사》 《스페인어 문법》 등이 김교수의 대표적인 저서이고, 《동키호테》의 우리말 번역본은 뛰어난 번역서로 이

름이 높다.

김교수는 유학 떠나기 직전인 1960년 선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칠보사에 잠시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칠보사는 전국의 선승들이 서울을 통과할 때 머무는 거쳐. 여러 선승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춘성 대선사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 때 춘성 선사에게 들은 대선사의 일화와 선문답을 이 책에 몇편 소개했다.

선에 대한 관심은 유학 중에도 지속돼 수도원에서 불교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72년 스페인의 문학 평론지 《프로메이오》에 〈선과 환 라몬〉을 발표하는 등 선과 학문을 접목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20세기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 우나무노에 관한 연구서를 집필하고 있다. 우나무노는 소설과 희곡 등 문학을 통해 '생의 비극적 감정'을 전개했다. "철학자나 문학자나 라는 논란이 있지만, 우나무노는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주제에 집착한 갈데없는 철학자다." ◆

크루스의 신비주의)를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 앞에 새롭게 배치해, 열다섯 살이나 젊었음에도 테레사 성녀를 '지도한' 성 환의 면모를 통해 동양사상과 서양 신비주의의 유사점을 강변한다.

일반독자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제목에서 논문 소제목까지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꿨다. 13년 전에 나왔던 책을 다시 펴내는 까닭도 서구사상에 깊이 몰든 젊은이들에게 동양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10여년 전만해도 서구문학에 나타난 정신을 강조하면 학생들이 떨떠름하게 여겼습니다. 위대한 문학작품들이 어떻게 보잘 것 없는 동양사상의 영향 아래 있느냐고 따져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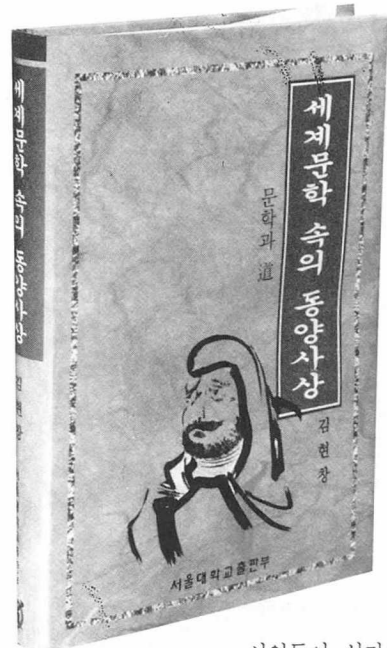
김교수의 강의는 외국문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양사상과 한국학에 대한 내용이 삼분의 이나 차지한다.

'선은 통속화된 불교'라는 식의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정의내리기는 곤란한 일이다. 규정당함을 배격하고, 철학적인 논리와 해석을 거부한 까닭에 천년을 이어져 오면서도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다. 특성과 방법론을 통해 선의 면모를 감지할 수 밖에 없는데 선은 자족·자유정신·구체성·현실과의 접촉을 특성으로 하고, 공안(公案)·화두·선문답·선사의 태도 등을 통해 깨침으로 나아간다.

서구문학에 나타나는 선정신의 편린은 최초의 근대소설 《동키호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동키호테의 행동주의는 '백척간두에서 한발을 내디디 떨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큰 용기가 온다[百尺竿頭如何進步]'는 선가의 가르침의 반영이다. 이밖에도 단테·셰익스피어·에크하르트·괴테 등의 작품에서도 선정신을 엿볼 수 있지만, 서구문학이 본격적으로 선정신을 수용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다.

### 스페인어권 문학의 원천 분석

금세기 초와 1950-60년대 서구에서는 동양사상에 대한 탐구가 불길처럼 번졌다. 세기 초에는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을 표방하는 작가들이, 세기 중반에는 '비트세대'의



시인들이 선가의 방법론을 따랐다. 이들은 시의 자연발생성을 강조한 '자동기술법'이라는 시작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걸리는 바 없이 마음을 내리[應無所住以生其心]'는 가르침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특히, 선사상은 스페인어권 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원천이다. 세르반테스 이래로 스페인, 남미 가릴 것 없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김현창 교수는 스페인어권 문학의 대표작가와 그들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동양사상을 연결해 엄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옥타비오 파스는 음양설과 주역의 팔괘를 통해, 보르헤스는 불교사상을 통해, 히메네스는 선적인 요소를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의 본령을 파악했다.

이 책에는 보르헤스와 움베르토 에코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에코는 《장미의 이름》의 등장인물 호르헤 신부를 보르헤스에게 헌사한 바 있다. 국립도서관장을 역임한 독서광 보르헤스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책벌레 에코는 '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관련성이 부각되어왔다.

하지만 이 책은 두사람이 동양사상에 정통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전한다. 보르헤스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펴낼 정도로 불교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에코는 직접 선을 체험하면서 관련된 글을 여러편 썼다.

— 최성일 기자